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청년농 '선임대후매도' 사업 추진

✎ 추홍식 | ☎ 승인 2026.07.19 14:28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청년농업인의 농지 마련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먼저 매입해 장기 임대한 뒤, 임차인이 여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임대 기간 중 자금을 마련하면 조기 매입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이다. 지원 농지는 1천㎡ 이상 논·밭·과수원으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이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 또는 발기반정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농지 소유자 역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부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선임대후매도 담당자(054-930-0722)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규석 성주지사는 "청년농 육성 정책에 맞춰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미래 농업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추홍식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